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 복음기도신문

Good News & Prayer Newspaper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십자가 자랑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성도들을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1,4)

사상 초유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 미국에 기도의 불을 지피고 있다. 인종과 교단을 초월해 기독교인들은 회개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 주요 목회자들은 집회와 예배,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라' '희망을 가지라'고 외치고 있다.

대규모 기도운동은 목회자가 아닌 현역 정치가로부터 시작됐다. 미국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릭 페리 텍사스주지사는 6일(현지시간) 휴스턴 리라이언트 스타디움에서 대규모 기도회를 갖고 "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답(the response)'이라고 명명된 이날 기도회에는 텍사스주는 물론 전국 각지에서 2만명이 넘는 기독교 신자들이 모여 한끼를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 기도회에 대해 곱지 않은 시각도 있었다. 페리 주지사의 대선 행보와 맞물려 종교를 정치적 도구화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 경제의 위기에 따라 신자들의 기도 열기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는 전언이다. 페리 주지사는 이날 "국가의 위기상황에 처해 시장에서는 두려움이 느껴지고 정부 청사에서는 분노가 목격되고 있다"며 "우리를 창조하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밤 시카고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미국 최대 교회를 이끄는 조엘 오스틴(레이크우드교회) 목사 부부는 시카고 화이트삭스팀의 홈구장인 유에스셀룰러필드 야구장에서 '희망의 밤' 집회를 열었다.

주요 복음주의 목회자들도 자신의 트위터에 신용등급 하락과 관련해 메시지를 올렸다. 하나님께 대한 변하지 않는 신앙을 강조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티머시 켈러(리디머교회)목사는 "물질에 얽히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했다. 릭 워런(새들백교회) 목사는 "신실하지 못한 세상에서 신실함을 유지하라"고 했다. 찰스 스탠리(인터치미니스트리) 목사도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을 떠올리며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했다. 존 파이퍼(베들레헴침례교회) 목사는 이례적으로 17세기 영국 장로교 목회자였던 존 플레이벨의 신앙을 소개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목격하는 6가지 방법'이란 글에서 파이퍼 목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심, 은혜, 불변하심, 신실하심을 믿을 것, 하나님의 지혜에 눈을 맞출 것' 등을 제시했다.

##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시나이다” 미국 경제위기, 기도의 불을 붙였다

### 기도집회 잇판 개최...수만명 기독교인 금식하며 부르짖어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 강등에 따른 위기 상황이 미국인들의 기도의 불을 지피고 있다. 지난 6일 텍사스 주 휴스턴에서 열린 기도집회 '응답(the response)'에서 2만여명의 크리스천들이 기도하고 있다.

고 했다. 릭 워런(새들백교회) 목사는 "신실하지 못한 세상에서 신실함을 유지하라"고 했다. 찰스 스탠리(인터치미니스트리) 목사도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을 떠올리며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했다. 존 파이퍼(베들레헴침례교회) 목사는 이례적으로 17세기 영국 장로교 목회자였던 존 플레이벨의 신앙을 소개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목격하는 6가지 방법'이란 글에서 파이퍼 목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심, 은혜, 불변하심, 신실하심을 믿을 것, 하나님의 지혜에 눈을 맞출 것' 등을 제시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합3:17-18)

사랑하는 주님! 안전할 것만 같았던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흔들리며 세계의 경

제가 함께 흔들리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지 아니한 모든 것은 결국 무너짐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 이심을 이들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경제의 위기를 말하며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에 눈을 들에 주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나그네의 삶을 알게 하여 주시어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들로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곧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합니다. 주님! 이 은혜의 때에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계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 주께 영광 돌리며 주를 찬송하는 자들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모든 열방 가운데 행하고 계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기도24:365제공]

▶ **관련기사 3면**

인종과 교단 초월, 회개와 금식 선포

미 공화당 '릭 페리' 텍사스주지사

"위기 극복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주요 복음주의 목회자들 자신 트위터에

'하나님께 대한 변하지 않는 신앙 강조'



## INSIDE



▶ **기획 4면 - 왕의친구학교**



▶ **인터뷰 5면**

"이 땅에 들어와 생명을 내놓은 선교사처럼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 김형환 집사

김용의 선교사 컬럼



# “말세에 고통하는 때,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할 때”

말세가 고통스러운 이유  
사람들이 더 악해지고  
인간성이 황폐해지기 때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많아  
설령 이 땅에서 손해 볼지라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자

성경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세가 고통스러운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지고 인간성이 황폐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고통스러운 또 하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치고, 적당히 타협해서 얼버무린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말 1:2)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듯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 헌금, 기도에 전혀 마음을 담지 않은 채 내가 할 것 다하고, 내가 쓸 것 다 쓰고 남는 것을 바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서는 ‘어디 나를 한 번 감동시켜봐라’하고 앉아 있습니다.

“너희가 눈 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말 1:8)

뿐만 아닙니다. 이러한 자들의 불경건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말 3:13-15)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겠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현실은 현실이야, 지혜롭게 해야지 무슨 고생하려고 그래, 적당하게 살아.”라고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 불경건한 자들의 세력이 득세하고 있을 때, 복음을 겨우 정신적 위안거리 정도로 생각하는 이때에, 예수님을 문제해결사 정도로 생각하는 이 세대 한 복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말 3:16)

외롭지만 믿음을 지키며 좁은 길을 나아가자고, 설령 이 땅에서 손해를 볼지라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자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자고 서로 격려하며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예배 중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는 바로 이런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이 모든 것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나를 소중히 여겨 아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말 3:17)

그러므로 우리는 경외함으로 나갑시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합시다. 불의한 자들이 일어나는 이 말세의 때에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영화롭게 합시다!- 메시지 정리

〈순회선교단 대표〉



## ✦ 생명의 떡

### ‘어떤 것이 제 십자가인가요?’

일본 / 이바라기 쿤 Ibaragi Kun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딤후4:12**

26명의 죄수들은 유죄 판결과 사형 언도를 받은 뒤에 조잡하게 만들어진 십자가들이 나란히 서 있는 곳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혐의로 3개월 전에 도쿄에서 체포된 그리스도인들이었다. 그중에는 이바라기 쿤이라는 소년도 있었다.

그때 관리 한 사람이 쿤의 나이가 어린 것을 보고 그를 대열에서 제외시킨 뒤 설득하였다. “야야, 너는 아직 나이가 어리니 신앙을 부인하고 목숨을 건지는 게 어땠겠니?” 그러자 쿤이 관리의 눈동자를 응시하며 확신에 가득 찬 어조로 말했다. “그것보다는 나리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더 나를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 관리는 어린 소년의 신앙에 감탄하여 멍하니 바라보았다. 마침내 쿤이 물었다. “나리! 어떤 것이 제 십자가인가요?” 당황한 관리는 26개의 십자가 중에 가장 작은 것을 가리켰다. 그러자 쿤은 자기 십자가로 달려가더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끌어안았다. 그리고 마침내 병사들이 소년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기 시작했을 때 소년은 단 한마디의 비명도 지르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길로 담대하게 걸어갔다.

1596년 11월 23일, 스물여섯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순교한 이 사건은 일본 기독교의 흑독한 박해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70년의 세월 동안 거의 1백만 명에 달하는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했다. 그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2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누구보다 성숙했던 쿤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꼭 껴안고 죽음을 맞이했다.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느냐는 영적인 성숙도와 전혀 무관하다. 오히려 영적인 성숙도는 어느 날 한 번에 측정된다. 우리의 믿음을 생활에 얼마나 잘 적용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 성숙도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적인 성숙도는 대중들의 통념과 달리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하는 것에도 무관하다. 성경에 대해 잘 알면서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숱하게 많기 때문이다. 영적인 성숙도를 나타내는 진정한 표지는 바로 성경의 명령에 얼마나 철저히 순종하고 이느냐 하는 것이다.

(출처:주를 위해 죽다(2010), 규장판)

## 복음기도 포토 에세이

### 그리스도의 군사들의 군장 사열(査閱)



1개월 여정의 국내 아웃리치를 떠나는 한 그리스도 군사들의 가방에서 나온 소지품. 침낭 한개와 두벌의 신, 햇빛 차단용 모자, 양말과 속옷, 로고가 달린 반팔 티셔츠, 성경과 복음노트, 묵상노트와 세계지도정보, 신분증과 안경집, 지갑과 물통, 필기도구 등.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모병된 제 8기 복음사관학교 훈련생들은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19일까지 28박 29일간 대장 되신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전국 6개 지역을 순회하며 복음과 기도의 군사들을 일으켰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딤후 2:4)

〈사진제공 : WMM〉

십자가만 자랑하며

# “무소유의 삶을 선포하는 이 순간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이상호 집사 (선한목자교회)

작년 10월 복음사관학교 훈련기간에 가졌던 느헤미야 52 기도 가운데 있었던 일이다. 당시 내 마음에 흔재하는 것들이 있었다. 주님의 비전과 내 욕망이 뒤범벅이 되어 주님 앞에 기회만 닿으면 칭찬 받을 것이 라고 생각했던 크리스천 펀드의 기획안 그리고 사업계획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었고, 사단의 앞잡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추어주시며 그동안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던 나의 존재적 죄인됨을 보게 되었다. 도비야처럼 성전골방을 더럽힌 자가 나임을 알게 하신 것이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명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느13:8-9)

거룩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나라.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가는 나라. 돈으로도 못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이제 결정해야 했다. 세상인가? 하나님나라인가? 도비야가 떠나간 그 방! 세상이 떠나간 그 곳! 내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채울 것을 결단했다.

단, 한번도 무소유로 살아갈 것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없었다. 물론 주님을 만날 때 내 상황과 환경이 빚진 자였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아마 그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두려움이었던 것 같다.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난 여전히 반문한다. “무소유의 삶이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받아서 쓰겠다는 것이니까요. 또 흘러 보낼 것도 없다는 이야기니까요. 생명이 생명을 낳듯 재정 역시도 같은 이치 아닌가요?”

사단의 말장난이다. 무소유로 살아가는 것과 재정의 흐름과는 별개라는 걸 잘 알고 있다. 나 역시 가진 자가 되어 흘러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 포장한 채 내안에 가득 차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결론은 무엇인가? 난 돈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또 그것이 믿음 없음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결론을 보며 다시 주께 반문한다. 순회선교사가 아니어도 무소유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이 말씀 하신다. “시험 해보라 그리고 확증하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절도다’ (딤후 6:10)

이렇게 무소유를 결단하고 세상과의 결별을 시험할 것을 결단했지만 용기가 없어 세상은 모르게 선포한 채 5개월이 지났다. 지역교회 3곳을 돌며 기도하며 복

음기도신문을 돌리던 어느 덧. 아무 일 없어 보이는 듯 했지만 실상, 생활비를 줄이고 줄여서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세금이 밀려서 더는 못 건드릴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왔다.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재정을 구하는 나를 보며 한없는 비참함과 절망을 보았다.

더는 이 생활을 못할 것 같아서 그만두려 할 때 마다 주님은 철저한 당신의 은혜로 또 하루를 가게 하신다. 전에는 알 수 없던 은혜. 한 끼를 먹어도 주님의 은혜요. 아이가 학교를 다녀와도 주님이 하신 것이요. 잠자리에 들어 하루를 마치는 기도를 할 때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오늘은 마지막이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라고 말하는 날에는 여지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방문해서 복음을 나누고 더욱 견고케 하시니 놀라운 주의 섭리가 아닐 수 없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결론을 내어주신다. 진리가 결론이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여 일어날찌어다! 내 뜻대로 사는 것 아니요.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주님 만나고 덩으로 살아가는 인생 하루를 살아도 무조건 수지맞은 일 아닌가? 설령 오늘 죽는다고 해도 나와 우리집 가족들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언제까지 상황과 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것인가? 언제까지 ‘이것만 해결되면’ 이라고 말 할 것인가? 세상이치로는 실수와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믿음의 실험을 멈출 수 없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이며, 하나님나라는 실존하는 나라임을 믿기 때문이다. 담대하라! 까짓거, 다해봐야 죽기밖에 더하겠는가?

첫 부르심이 최상의 선택 이었다면, 나중 부르심은 주를 떠나서 살래야 살 수 없는 자의 돌이킬 수 없는 필연의 선택이다. 주의 종이란, 주님의 은혜에 잠겨 주님이 전부가 되어버린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구할 것은 더욱더 주님일 수밖에 없다!

무소유의 삶을 선포하는 이 순간 나는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이다. 왜냐하면 창조주 되신 주님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럼 더욱 더 진리 되신 주님 안에서 세상이 아닌 실제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누릴 것이다. 주를 누리는 자 풍요롭다. 주를 누리는 자 실로 안식하는 자이다. 주님이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시리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여 나와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여 일어날찌어다!’ 끝은 반드시 올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 선교통신

# 시리아 반정부시위, ‘피빛 라마단’ 우려

### 영적 갈망으로 성경 찾는 무슬림 많아 ... 현지에서 기도요청



수개월째 반정부 시위로 혼란 상태에 빠져 있는 시리아에서 라마단을 맞은 무슬림들이 모스크에서 기도를 마치고 반정부 구호를 외치며 나오다 비밀경찰에 의해 살해되는 등 피빛 라마단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시리아의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한 모스크에서 라마단 기도를 마치고 반정부 시위를 마치고 나오던 무슬림 상당수가 체포되고 반정부 2명이 현장에서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식통은 라마단 기간 동안 매일 저녁기도를 하기 위해 시민들이 몰리는 모스크에서 시위가 발생할 경우,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한 정부가 시위 동력을 분쇄하기 위해 진압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리아 정부군은 라마단 시작을 하루 앞둔 지난 7월 31일 탱크를 동원해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가해 전국에서 140명 이상을 숨지게 했다.

소식통은 “라마단은 단식과 금욕생활을 하기 때문에 전쟁이나 전투가 중단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으나, 올해는 전례 없이 시위대의 활동이나 이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대응으로 유혈충돌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시리아에서 이번 반정부 시위와 관련 정부군의 강경대응으로 2000여명이 사망했으며 1시간당 한 명꼴로 실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식통은 이와 관련, 위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취했던 행동처럼 이 땅의 상황과 중보를 요청한다고 소식을 전했다. 먼저 하나님은 천하만국에 홀로 하나님이고 주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신다는 고백과 함께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중동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편안하게 일어나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기를 선포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최근 라마단 기간을 맞아 사람들이 영적인 갈망으로 가득해 성경을 나눠주면 받아가기도 하고, 성경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와 같은 때에 꿈과 환상을 통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는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도록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 1면에 이어 -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 세계 최대 개신교의 나라



면적 952만9천km<sup>2</sup>(96배)  
인구 3억1700만명(6.5배)  
도시화 82%  
종족 미주백인 58.1%, 라틴 카리브계 아메리카 14.7% 아프리카계 아메리카 12.2%  
종교 기독교 77.6%, 무종교 15.5%, 유대교 1.6%, 이슬람교 1.6%  
\* ( )은 대한민국 대비  
<출처: Operation World 2010>

북아메리카 대륙의 중심부를 차지하는 연방 공화국으로, 국제 정치·경제상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와 국토 면적이 세계에서 세 번째!

미국 경제가 살면 세계 경제가 살고 미국 경제가 침체되면 세계 경제가 침체된다.

최근의 경제 위기도 모두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달러의 운명과 함께 가는 거죠.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미국이 여전히 세계를 먹이는 대체시장 국가가 되도록 기도하자.  
미국 파이팅!

<출처:민화 열방기도정보, 넥서스CROSS>

기획 - 왕의친구학교

# “엄마 아버지의 하나님 아닌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 초등1학년 ~ 중1 대상 2주간 진행된 '왕의친구학교'... 풍성한 화제와 간증



“이번 ‘왕의친구학교’는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엄마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어린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부터 중학교 1학년 까지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7월25일부터 8월6일까지 2주간 순회선교단 다음세대팀 한 ‘왕의 친구’학교가 다양한

이 주관 화제와 간증을 남기고 막을 내렸다.

학교를 진행한 이종희 선교사는 “목상도 기도도 잘 못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스스로 고칠 수 없다고 말하던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기도하는 것을 물론 기도모임을 인도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했다”고 말했다.

선교사와 목회자 및 선교관 십자의 자녀 32명과 섬김이 20명의 참여로 전남 무안 하묘교회(담임 김기철 목사)에서 진행된 왕의친구학교는 모든 훈련과정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 훈련비부터 믿음으로 재정을 구하는 방식을 택했다. 한 훈련생 어린이의 어머니는 “옆에서 보기에 마음이 짠 안타까움도 있었으나 재정을 놓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에 다소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 주간 이론교육과 한 주간의 아웃리치 일정으로 진행된 과정에서도 많은 풍성한 은혜를 낳았다.

먼저 목상과 복음 스터디, 강의, 말씀기도, 느헤미야52 기도 등의 렉처시간을 보낸 후 4개 팀으로 구성돼 전라도 8개 지역

을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머물렀다. 아웃리치 기간에는 정착할 곳을 찾아 하루에 3~4시간을 걸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였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다고 학교측은 전했다.

이번 학교의 장소를 제공한 하묘교회 김기철 목사는 주일예배를 마치고 어린이 아웃리치팀을 파송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으키고 계시는 다음세대라고 아이들을 소개하며 벽찬 감동으로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어린이들은 처음으로 무거운 배낭을 메고 하루에 세 시간 이상을 걷거나 많게는 7개 교회에서 거절당하고 전도하다 욕을 먹는 순간도 있었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며, 대적이 문의 박살나며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교회를 찾지 못해 몇 시간 동안 걸어야 했던 김예원 학생(13.초6)은 다녀온 후 “땀벌에서 몇 km씩 걷는 고통의 순간도 있었지만, 다음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다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역 교회를 방문한 아웃리치 팀 어린이들은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느헤미야 52일 기도 정보책 ‘복음과 영적전쟁’으로 24시간 연속기도를 함께 하기도 했다. 새벽부터 자정까지 지역교회에 기도의 불을 밝히고 이동 중에는 노방전도를 하는 등 다양한 곳에서 새로운 경험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눈물과 감동,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던 왕의친구학교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요한복음 15:14-15)는 말씀을 가지고 진행됐다.



[어린이 훈련생 고백]

###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다니시는 분임을 알았어요.”

“이제 결단하고 실천할 것은 지금까지는 나도 모르게 사단이 좋아하는 일만 했지만,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로 옷입어 주님처럼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만을 믿고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했다” - 지○○(12.초5)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아들을 버리신 것같이 나도 주님께 전부를 드려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을 위해 선교완성을 위해 주님의 바램을 위해 매일 빼먹지 않고 1시간씩 기도할 것입니다.” - 이○○(11.초4)

“이제부터 하나님만 경외하고 사랑해야겠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뱀은 말처럼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겠고 이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고 싶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겠다.” - 김○○ (13)

“이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여 살아야겠다. 그리고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다니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겁내지 않아야겠다.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주님께 한 걸음씩 나아가야겠다.” - 정○○ (12)

[인터뷰] 이종희 선교사

### “저도 변화되고 싶어요”... 한 어린이의 고백

- 왕의 친구 학교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지난해 1년 동안 순회선교사 자녀들을 맡아 가르쳐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모, 삼촌만(아이들이 다른 선교사님들을 부르는 호칭) 경외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며 탄식과 아픔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조금만 안다면 이럴 수는 없는데.. 하나님을 알면 경외하고 사랑 할 수밖에 없는데 라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찾게 되었어요."

- 이번 학교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한 아이가 한번 씩 다른 친구들에게 욕 하고 괴롭혀서 경고를 주게 되었어요. 계속 이러면 집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혼을 냈지요. 그런데 아이의 반응이 “저 여기 있게 해주세요. 있어야 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혹시 엄마한테 혼날까봐 그러냐고 되물었더니 “저도 변화 되고 싶어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아이는 침낭으로 뛰어 들어가 혼자 기도하는 것을 봤어요. 자신으로서 안된다고 말하며 기도하던 아이의 모습이 기억에 남아요."

-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복음을 들은 후 아이들의 공통된 반응은 난 정말 지옥의 자리에 있었구나 였어요. 내게 예수생명이 필요하구나. 나로서는 할 수 없구나. 주님이 도와주셔야 하는구나. 그래서 순종과 믿음밖에 없구나. 요21장의 제자들처럼 주님 따라가는 것 밖에 없는 주님의 친구로 계속 남길 원한다고 고백하였죠.”

- 섬기신 소감을 나누어 주신다면요?

“끝난다는 것이 너무 아쉬웠어요. 섬기는 모든 분들이나 마찬가지로 오히려 저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주님이 더욱 기대가 되요.”





# “이 땅에 들어와 생명을 내놓은 선교사처럼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 김형환 집사(노량진감리교회)

주님을 만난 사람이 겪게 되는 인생 최대의 사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생임을 깨닫는 순간 부터 시작되는 역사. 바로 변화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변화.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길에서 어느 날 봉착한 막다른 길. 끝 인줄 알았는데 비로소 시작이었다. 변화와 함께 마침 내 누리게 되는 진정한 자유. 완전하신 주님과 함께 행복한 새 삶의 길을 걷어가는 김형환 집사(47)를 만났다.

**- 요즘의 삶을 나눠 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오셨던 분들이 계속되는 변화를 바라보면서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 삶을 주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며 축하해주세요. 물론 복음과 무관한 삶의 현장에 계신 분들은 ‘미쳤다고 해요. 이해가 안된다는 거죠. 너무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냐고 되물 습니다. 저의 남은 인생을 걱정해 주며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고 염려해주세요(웃음)”

**- 어떤 변화들을 경험하셨는지요.**

“참으로 오랜 시간동안 부질없는 삶을 살았죠. 초저녁에 술과 함께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 위장약을 먹으며 하루 일과를 마감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20년 넘게 피던 담배가 절로 끊어진 저의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충격을 받더군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그저 눈에 보이는 변화일 뿐이에요. 그러나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쉽지 않아요. 그게 저에게는 난감한 숙제였어요. 생명의 진리를 전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어떻게 도울지가 숙제예요. 물론 방법이 있죠.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지요. 그래서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내안에 계신 주님. 지금 하십시오.’라고 기도해요.”

**- 지금과 같은 변화 이전에는 어떤 삶을 사셨나요.**

“저는 실내 디자인 즉, 인테리어 분야의 일을 대학 재학중이던 20년 전에 시작해 최근까지 했어요. 국내외 호텔, 펜션, 골프장, 리조트 인테리어를 맡아 일해왔죠. 그러다 중간에 연기, 음악, 미술, 시낭송, 방송분야 등에 뛰어들어 10여년 세월을 보내기도 했죠. 그 분야의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저의 경우, 지독한 자아추구의 삶을 살아온 것이죠. 그러다 98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해 2006년에 실패로 끝내게 됐죠. 그리고 동시에 이혼으로 아내와 자식을 떠나 보내야 했어요. 정말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는 시간이었죠.”

**- 그 이후에 주님을 만나셨군요.**

“다시 직장을 잡고, 일을 시작했어요. 그 무렵 회사의 한 직원에게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떤 계기로 그에게 그런 변화가 나타났는지 알고 싶었어요. 나중에 그가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저도 교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예배 때 5살 무렵 천막에서 찬송하고 예배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주님이 저를 참 오랫동안 기다려주셨구나 라는 사실과 저를 그때까지 기다리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후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지난 6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죠. 말씀 나누는 게 좋았고, 변화된 삶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외면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내면의 영역은 여전히였어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 제 자신이었던 것이죠. 모든 삶의 태도가 내 자아의 성을 쌓는 도구였다는 사실을 총체적인 십자가 복음 앞에 섰을 때에 비로소 깨닫게 됐어요.”

**-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조금 더 부연설명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전에도 예배드리는 게 즐거웠어요. 또 열정적으로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기도 했죠. 그런데 어

느 날 한 아이를 바라보며 음욕을 품는 제 자신을 보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인가 생각하고, 음란한 생각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며 제 자신을 책망했죠. 이혼을 한 후 외롭다는 핑계로 음란물을 다운받고 지우던 저의 모습은 철저히 감추고 사람 앞에 좋은 것만 보이고 평점 쌓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저를 발견하게 되었죠. 말씀 앞에 서면 주님은 신실하셨지만 저는 늘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주체가 제 자신 일 때는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복음을 만난 후 깨닫게 되었죠. 상황과 조건이 바뀐다고 해서 죄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을 만난 후 하나님께 매순간 나를 전부 드릴 때 복음을 실제로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정말 내가 변한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의 말처럼 저는 여전히 뺨찌리지만 백점짜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만 바라보며 망설임 없이 이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뿐이죠.”

**- 최근 선교훈련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완전한 복음을 만난 후 저의 삶을 전부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했죠. 주님이 그때 인도해 주신 첫걸음이 바로 2011년 상반기 6개월 동안 복음선교관학교에서 훈련 받았어요. 이 학교를 통해 받은 훈련과 감동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실제로 점검하는 3주정도의 일정으로 태국 아웃리치 현장을 뺄 수 없죠.”

**- 아웃리치라는 것이 뭐죠?**

“15주간의 이론훈련 이후, 2~3주 정도 국내외 선교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참여하는 시간이에요. 저희는 10명의 팀원 중 중보기도자 1명을 제외하고 9명이 태국으로 가게 됐어요. 저희는 ‘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행9:16)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 팀명을 대가지불로 결정했어요. 정말 팀 이름 대로 팀원 각자가 혹독한 대가를 지불했어요.”

**- 어떤 대가 지불들을 하셨나요?**

“저는 투병중이던 아버님이 아웃리치에서 돌아올 때까지 생명을 붙여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출발 15일 전쯤 아버님을 데려가셨어요. 결과적으로는 주님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게 하시고, 아웃리치에 전념하게 하셨죠. 회사도 내려놓아야했죠. 20일이 넘게 자리를 비워야하는 상황에서 ‘회사나 아웃리치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했지요. 그러나 주님이 이끄시는 여정에 대해 의심 없이 반응하는 것만이 우리가 치러야할 대가지불이라는 것을 순종해가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편에서 아멘해야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웃리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내일 일정을 전혀 세울 수 없는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팀은 오직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전쟁의 자리든지 은혜의 자리든지 주님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었어요. 지체중 누군가 아파도, 현장에서는 어떤 대안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그때 ‘주님이 해결하실 께야’ 라고 반응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가지불이었어요. 의심하지 않는 절대 믿음인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한다기보다 주님만 기대하며 그분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출발 직전 모든 대가를 주님이 이미 지불하셨다는 고백을 받으시고, 저희에게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팀명을 바꾸기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팀명이 중간에 바뀐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 아웃리치 현장에서 특별한 경험이 있으셨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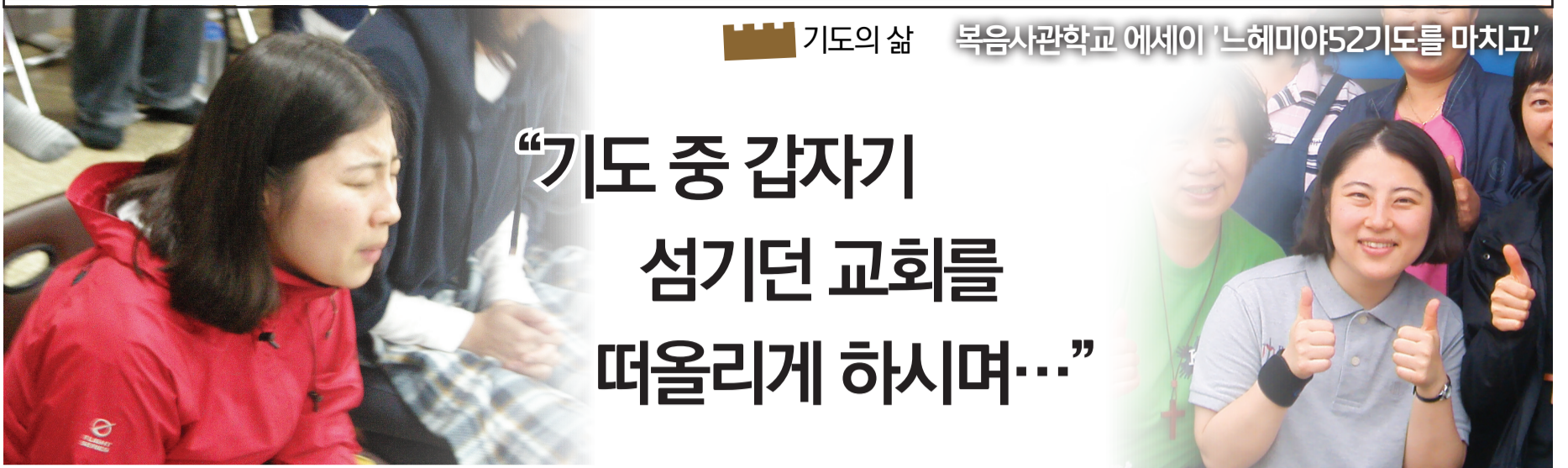
“저희 팀은 현지 선교사님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아무 계획도 없이 그곳에 도착해 매일의 일정을 잡아가야만 했어요. 다음날이 돼서야 일정을 알게 되었지만 누구하나 어려워하지 않았고, 주님만 신뢰했죠. 말씀이 실제 된 현장을 주님은 날마다 보여주셨지요.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고 마음껏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거의 5000여명의 현지인과 함께 기도했고, 갈2장20절을 배경으로 만든 스킷 드라마를 600여명의 현지인들에게 보여드리며 복음을 전하기도 했어요. 태국에는 10대 중반의 싱글 맘들이 많다고 그래요. 또 갑자기 마약을 하게 된 청소년들이 많고 마약값을 충당하기위해 몸을 파는 아이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이들을 방치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만나며 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시간이나 상황, 문명이라는 차이를 넘어 영혼 구원에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열심을 보았어요.”

**-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선교관학교 훈련과정에 양화진 선교사모역을 방문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막연히 복음이 전해져왔을 것으로 생각했지 구체적으로 전해지기까지 어떤 대가들이 필요했는지 몰랐었죠. 그분들이 치른 대가는 예수생명이었어요. 선교사님들마다 한발 한발 걸어와 밀알처럼 그 생명을 내놓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에 대한 죽음과 선교적 삶은 필수임을 깨닫게 되었죠. 내가 처한 곳에서 이와 같은 삶으로 가는 과정 중에 하나로 복음사관학교에서 조금 더 훈련을 받고 싶어 원서를 제출했어요. 복음학교 이후 선교관학교까지 이끄셨던 주님이 주신 은혜는 저의 기대보다 훨씬 컸어요. 또 다른 차원에 더 치열할 수도 있겠지만, 그곳에서 실제 될 일, 감추어진 옛 생명의 것들을 죽음으로 넘기고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는 일 되게 하실 주님이 기대돼요. 더 큰 것을 기대하기보다 더 세밀하게 실체가 될 것을 기대하죠.”

**- 끝으로 기대하는 바나 기도제목이 있으면 나누어 주세요.**

“교회에 대한 소망을 포기 할 수 없어요. 또 믿음의 형제 중 참 감동을 주고 배움을 준 분들 이 많은데요. 그분들처럼 주님 앞에 철저히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소망이에요. 태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고요. 내 마음 안에 핵심가치가 매순간 예수그리스도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 “기도 중 갑자기 섬기던 교회를 떠올리게 하시며...”

###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약속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오늘의 느헤미야입니다!’를 힘차게 외치며 시작한 복음사관학교. 그 과정 중 느헤미야52기도가 시작됐다. 그런데 훈련과정중이어서 그런지 큰 기대감이 생기지 않았다.

첫째 날 박해받는 국가를 위해 기도했다. 주님이 점점 기대함 없이 기도하던 나를 책망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 증인들을 보며 전심으로 다시 설 것을 결단하게 하셨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갈수록 주님을 더욱 알고 싶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열방이 더 보였다. 지구촌 문제를 기도하며 열방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수 없어 답답하였다. 그런데 기도는 정말 믿음임을 알게 하셨다.

그리고 미전도 종족을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가슴이 벅차도록 부여졌다. 나는 복음이 모든 종족들 가운데 다 전파된 후 그 종족이 만약 자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안타깝지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그렇게 아니었다. 열방의 어떤 영혼이라도 한 영혼도 포기 할 수 없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함께 주님을 맞이해야 한다는 열망이 나의 마음을 불타게 하였다. 그리고 이전에는

믿음이 없어 하지 못했던 기도인 주님! 모든 영혼이 돌아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 이제 교회의 영광이 저의 영광입니다.

말씀기도 시간에 주님은 군사로의 부르심과 교회를 향해 말씀해 주셨다. 나팔소리가 들리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바로 싸우기 위해 달려가야 하는 군사라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정말 나팔소리가 들렸을 때, 바로 머뭇거리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으며 달려갈 수 있는자인가?

갑자기 섬기던 교회를 떠올리게 하셨다.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깨닫게 하셨다. 눈물이 흘렀다. 가슴이 찢어지는듯한 아픔이 실제 느껴졌다. 나는 그동안 교회를 위해 열심히 충성은 다해 왔지만 사랑하지 못했다. 교회를 사랑 하지 못하였기에 교회를 정죄하고 답답해하며 정작 품지는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더욱 생명으로 서지 못했던 것이다.

주님께 너무 죄송하였다. 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외쳤는데 진정으로 교회가 나오 내가 교회일이 실제 되어 보지 못한 것이다. 마침내 이 고백을 받아

내신 주님께 감사한다. 이제 교회를 위해 평생 썩어지라 하셔도 이제는 아멘이다.

‘한 교회도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교회의 영광이 저의 영광입니다. 좁은 길 일지라도 주님나라 임할 때까지 십자가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내 약함 모두 아시고 부르신 주님, 오늘도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날이 참으로 실제 되지 않았던 자를 참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자로 세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전효선 자매(복음사관학교 훈련과정 중)

※「느헤미야52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목표로 열방을 파수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52주 한 해 동안 한 주씩 한 교회가 맡아 진행되는 연속 연쇄 기도운동입니다.

### 2011년8월의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 34주차 (8월22일-27일)
  - 성산감리교회 - \*느헤미야 안석인 목사
  - 좋은샘교회 - 김호연 목사
  - 푸른언덕교회 - 박영주 목사
  - 한가족교회 - 이환득 목사
  - 열방선교센터 - 강옥주 전도사
  - 문광교회 - 최종덕 목사

- 35주차 (8월29일-9월3일)
  - 정릉감리교회 - 느헤미야 박경옥 전도사
  - 나무와씨앗교회 - 느헤미야 송경희 전도사
  - 번영로감리교회 - 고인자 사모

「느헤미야52기도」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느헤미야52팀으로 연락바랍니다.

☎ 070-7417-4366~7, 010-419-24365

\*느헤미야는 이 기도모임의 주관자를 의미합니다.

따라 읽는 말씀기도(22) - 하나님의 전쟁으로의 초대

##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왕으로 부르시다

-사무엘상 16장-

이 코너는 본문에 제시된 내용에 따라 읽고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시간을 가질 때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편집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고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았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전쟁의 대리자가 될 수 없었다. 하나님은 이새의 소외받는 한 아들 다윗을 주목하시고 그를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으셨다.



### 사무엘상 1장

(삼16:10-13) 이새가 그 아들 일곱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재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와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제 다음 기도제목과 읽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자.

1.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할 수도 없다. 이 땅의 교회가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기도하자.

2.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할 자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향해 중심이 온전하여 그와 생명 안에서 연합된 모든 자는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이며,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러한 다윗과 같은 자들을 일으키시도록 기도하자.

<출처: 기도24·365 제공>

### 원어로 읽는 말씀의 샘 1

## 예수생명은 마르지 않는 샘이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를 물던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사58:11)

정말 귀한 말씀이 보석같이 새겨졌다. 히브리어 원문에 따르면 이 구절은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이 될 것이라’(우크모차 마임 아셰르 로 예카 제부 메이마브)는 뜻이다. 즉, ‘존재의 변화’를 가리키는 말이다.

샘은 물이 있어야 하고 거기서 물이 흘러야 된다. 만약 물이 없으면 샘이 아니다. 거짓말이다. 절대로(강조의 의미) 거짓말 할 수 없는 그래서 실망을 주지 않는 근원이 되는 샘이라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너는 도중에 결코 물이 마르지 않는 샘이 될 것이라는 뜻이다. 도중에 마르는 물이라면 그런 물, 그 샘은 가짜일 것이다. 히브리어로 샘과 물이 하나로 묶여져 있다. 물이 그 샘에 속했다면,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선지자 이사야의 이 노래는 목이 마른 내 갈증을 해결해주는 것이 상의 의미로, 존재의 변화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이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약3:10).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내가 그 샘에 속한 물이라면 저는 절대로 거짓말 할 수 없는 그래서 실망을 줄 수 없는 근원이 되는 샘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이다.

김명호 목사(고대근동언어문화성지연구소 소장)



RETURN TO THE GOSPEL

# 다시 복음 앞에

복음기도동맹

## 십자가 복음의 증인, '다시 복음 앞에' 서라!

(Return to the Gospel)

하나님 나라의 전쟁 위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연합하자  
12월 13~16일, 복음과 기도의 동맹군 "출사표"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일어나 연합할 것을 제안하고 결의하는 집회 '다시 복음 앞에'(Return to the Gospel)가 오는 12월 열린다.

복음기도동맹은 오는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성남 선한목자교회(유기성 목사)에서 오늘날의 시대를 위기국면으로 규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선포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음기도동맹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십자가 복음이 온전히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해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신 십자가에서 조건 없이 연합하여 서로를 섬기기로

결단하는 그리스도인의 연합체. 지난 5월 이같은 취지에 동의하는 교회 및 선교단체 등을 중심으로 공동선언문과 행동강령을 채택한데 이어, 사무국을 결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동맹은 선언을 위해 철장 든 신부담게 7가지 항목(예배, 복음, 기도, 연합, 권위, 소유, 선교)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복음에 합당한 행동강령을 고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위기상황이라는 진단은 한국 뿐아니라 전세계 교회에서 동일하게 공감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분석이다. 그러나 이같은 위기는 예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한 세대 이전인 30년 전에도 충분히 예견됐을 것일뿐 본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동맹 참여단체의 공통된 인식이다. 지

금은 믿음의 전쟁을 해야하며, 믿는 바가 온전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맥빠진 전쟁을 치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이 각 영역에서 성취된 진리를 선포하고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이다.

한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개인과 단체 누구나 동참 가능한 복음기도동맹에는 현재 기도24365, 문화행동 아트리, 순회선교단, 요셉의창고미니스트리, 천보산민족기도원(가나단 순)과 본지를 발행하고 있는 GN미디어 등이 단체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문의 : 복음기도동맹 사무국 ☎ 010-9440-4365, gpall@paran.com, cafe.naver.com/gnpacafe



### 오픈도어선교회, 숨겨진 아이들 사진전 개최

## 부모의 투옥이나 순교장면 목격한 어린이들 충격 속에서 살아

“예수님,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친구를 잃은 모든 어린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세요”

박해국가의 어린이를 기억하자는 캠페인의 하나로 한국 오픈도어선교회에서 주최한 사진전, 숨겨진 아이들(Secret Children)이 8월 28일(일)까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광림교회 장천갤러리에서 열린다. 박해받는 어린이들이 전 세계의 그리스도 가족들과 연결되어 사랑과 지원을 받게 하고, 믿음 안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다음은 전시행사를 담당할 오픈도어선교회 최임경 간사와 일문일답.

- 숨겨진 아이들 사진전의 취지는?

“박해받는 국가의 어린이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박해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박해받는 어린이 부모들은 이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하고 있다. 부모의 투옥이나 순교의 장면을 본 후 충격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부터 이유 없이 가난과 모멸감을 받는 아이들이 많다. 이와 같은 아이들의 상황을 알리고 실질적으로 이들을 돕고자 하는 취지로 준비됐다.”

- 1000명의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전세계에는 약 1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하고 있다. 그중 30%를 자녀세대로 책정하면 약 3000만명의 아이들이 숨겨진 아이들이다. 그중 한국 오픈도어선교회는 1000명의 아이들을 서포터 할 수 있는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 박해받는 상황을 떠올리면 두렵고 우울한 장면이 떠오르는데 사진들은 대체로 밝은 모습이다.

“사실 잔인하고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사진도 있다. 이번 사진전은 사실 사진 자체의 전시회를 위한 것을 의미하기 보단 여러 기도 그룹 안에 박해받는 아이들에 관한 상황을 소개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박해받는 국가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분들에게 박해받는 국가 목록(World Woatch list)을 알리는 것도 의의가 있다.”

- 끝으로 오픈도어 선교회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달라.

“전세계 박해받는 크리스찬들을 섬기는 선교단체이다. 또한 자유세계의 교회가 박해받는 크리스찬들을 섬길 수 있도록 알리고 동원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

### 선교정보 네트워크

## “국내 이주민 한글학교 교사 및 서부 아프리카, 가나 단기선교사 모집”

선교인력은행 요셉의창고미니스트리는 국내 이주민 대상의 한글학교 교사, 서부 아프리카와 가나에서 사역할 단기선교사를 모집한다. 모집 영역과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국내 이주민 사역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한글학교를 섬길 교사, 복음과 기도의 증인으로서 한글 교육 가능자

▶ 서부아프리카 MR지역 = 현지도장에서 태권도를 지도할 교사 모집. 사역기간은 2011년 11월 중순 부터 2012년 11월 중순(1년)까지이며 태권도 2단 이상이어야 한다. 공동생활(숙식제공)을 하며 개인재정으로 언어훈련(영어,불어,아랍어)의 기회가 있다.

▶ 아프리카 가나 지역 =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다름바 종족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님과 협력(어떤 모양이든 상관 없이 섬길 수 있음)하는 사역으로 복음과 기도의 증인으로서 공동체 생활에 결격 사유가 없

는 자여야 한다. 문의 : ☎ 070-7417-4156~7, 010-2389-4156, jsministry@hanmail.net



## 제6기 문화예술선교사훈련학교(SAM) 훈련생 모집

문화행동 아트리는 공연예술의 다양한 재능을 세상이 주는 명예와 생계 문제에 끌려 다니지 않고 자신의 남은 인생 전부를 오직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기 소망하고, 복음과 기도의 증인된 그리스도의 군사를 모집한다. 10월 1일부터 11월 13일까지 테스트 및 훈련기간 동안, 1.1.1 프로젝트의 준비와 공연을 스태프로 동참하며 최종 심사를 거치게 된다. 총 훈련 기간은 약 8개월로서 2011년 10월 1일부터 2011년 5월 까지이다. 접수방법은 club.cyworld.com/waiters 에서 첨부파일 1차 전형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9월 17일 소인까지 등기로 접수해야 한다. ☎ 02-6404-9193, 010-7757-3185, 010-2652-4365



주님이 하셨습니다

# "이제 저는 사탄에게 속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목회자였고, 할아버지 역시 목회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라는 것을 몰랐고 죄를 거의 짓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 된 존재는 초등학교 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욕하고, 짜증내고, 화내는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유치원 때부터 태권도 도장을 다녔는데 형들의 사랑과 귀여움을 받으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 형들이 욕하는 것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욕을 머릿속에 기억했다가 할머니가 교회를 가기 싫어하는 저를 혼내실 때 할머니에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엄청난 꾸짖음을 받았습니다.

4학년 때 서울로 전학 와서 친구들에게 착하다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또 저는 운동을 좋아했기 때문에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과 어울리다 보니 유행어를 배우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5학년 때 사용하였습니다. 선생님이 계실 때는 최선을 다했지만 친구들과 있을 때는 유행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게 죄가 죄를 낳다가 친구와 주먹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나의 착한 성격은 그 때 온데간데없었고, 그 친구에게 욕을 하며 싸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또 서울로 전학 오니 시골에서보다 공부를 집에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공부가 하기 싫어 엄마에게 짜증을 내고, 화를 냈습니다. 또 아빠에게 혼

났을 때에 분노를 품었습니다.

저는 부모를 속이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였습니다. 컴퓨터 게임하지 말고 숙제를 먼저 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수없이 '예'하면서 게임을 몰래 하였고, 아빠가 PC방에 절대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는 형과 친구들의 꾀에 넘어가서 '그래! 친구 생일이니까!'라고 합리화 시키며 PC 방을 5번 이상 갔습니다. 생각이 잘 나지 않지만 수없이 속이고, 부모님께 거짓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집착하는 자였습니다.

저는 살인자였습니다. 시골에 살았을 때부터 친구가 없다보니 컴퓨터와 TV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에 TV와 컴퓨터를 바라보는 시간만 10시간 정도 되었습니다. 컴퓨터를 하다 보니 하는 게임도 많아졌습니다. 그중에서는 사람을 총, 칼로 죽이는 게임도 있었고 괴물을 죽이는 게임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게임을 잔인하다고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게임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재미있었고 게임상의 머니를 벌 수 있어 기분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저는 그게 살인인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살인이었습니다. 이런 게임을 하다가 5학년 때 복음을 알고 난 후 죽이는 게임을 끊었지만, 여전히 나는 게임을 하였습니다. 몰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보다 게임에 집중하고 게임이 더 좋았습니다.

저는 음란한 죄인이었습니다. 2학년 때 코미

디 사이트에 들어가 웃긴 사진을 보다가 19세 금지라는 표시를 보았습니다. 아는 형이 분명히 음란한 것이라고 보지 말라고 했지만 호기심 많은 나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 클릭해보자고 부추기며 음란한 사진을 보았습니다. 또 저는 5학년 때 가요를 접해 엄마, 아빠 몰래 걸 그룹 가수들이 너무 예쁘고 좋아서 집에서 뮤직비디오를 보며 음란한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을 안 이후에도 보았고, 가요 프로그램을 몰래 보며 음란한 생각을 했습니다. 또 지하철 공공장소에서 여자들을 보며 음란한 생각을 하며 간음하였습니다. 지금도 저는 음란한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탄의 속임수였습니다. 죄의 노예가 된 채 사탄이 조정하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나는 죄를 자동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속성을 가진 채 태어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죄 곧 나! 나 곧 죄! OOO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생명 OOO만 삽니다. 이제 절대 사탄에게 속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만을 붙들고 예수님만 붙들며 하나님께만 집중할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이제 다른 일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길을 굳게 파는 일만 할 것을 주님과 약속합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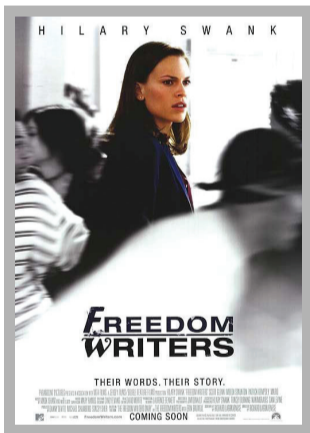
OOO(14.중1)

뷰즈 인 시네마  
Views in Cinema

## 『영화 '프리덤 라이터스'(Freedom Writers)』

### "전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했을 뿐이에요"

- "전 그늘 속에 놓고 있을 수 없어요" 에이미 카마이클 선교사의 고백을 떠올리며



영웅이란 누구일까? 어느 시대이나 사람들은 영웅을 원하고 그들이 세상을 바꾸어주길 바란다. 그만큼 세상은 갈수록 혼란스러워지고 정부나 권력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때로는 전혀 영웅이 될 수 없는 이들이 세상을 바꾸기도 한다. 바로 영화 속에 이들과 닮았다.

영화의 주인공인 23살의 초임 교사 에린 그루웰(힐러리 스웁스 분)은 자신의 수업을 통해 흑인, 동양계, 라틴계 등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과 만나게 된다. 그들은 각자의 다양한 환경에서 자랐고 어려운 생활고로 하루하루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마치 아프리카 내전 한 가운데서 총탄을 피해가며 팔 다리가 떨어져 나가 죽어가는 아이들처럼 이들에게는 살아있는 것이 전쟁 그 자체였다. 그런 그들에게 '안네의 일기'를 읽게 하고 그들이 겪고 있는 인종차별이 안네를 죽인 독일의 민족주의와 다를 바 없다는 실체를 깨닫게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매일의 삶의 경험들을 글로 쓰게 하

며 이러한 글쓰기를 통해 아이들은 타인과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연다.

한편 그들을 위해 교육당국에 필요한 예산이 없음을 안 에린은 그들을 위해 안정된 교사의 삶을 포기하고 낮에는 학교, 저녁에는 라제리 매점점원과 호텔 카운터 일을 하면서 유대인 학살의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체험하게 하고 안네를 숨겨준 생존자를 초대한다. 그러나 그녀의 눈물어린 희생은 결국 남편의 실망으로 이어지고 하루아침에 이혼녀로 낙인찍히고 가정을 잃는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는다. 결국 그녀의 희생과 노력으로 아이들은 변화되고 가족 중에 대학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아이들이 대부분 대학에 가게 되고 희망을 얻게 된다.

이 영화는 실제 고교 교사인 에린 그루웰과 그녀의 150여 명의 학생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 『프리덤 라이터스 다이어리 : 치유의 글쓰기』를 원작으로 하고 있다. 영화는 학생들을 향한 젊은 여교사의 헌신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의 삶을 존귀하게 바꾸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영화를 보는 내내 눈물이 났다. 먼저는 그녀의 눈물어린 투쟁과 희생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고, 더 많은 이들을 살리는 일이 되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심지어 남편에게 버림받는 상황에서도 그녀는 아이들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며 복음을 알고 누리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얼마나 하나님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해 그녀만큼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는가를 돌아보

며 또 눈물이 났다. 이 영화를 통해 깨달은 것은 내가 진정 영원한 삶을 얻었다면 마땅히 목숨을 걸고 그 가치만큼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진리를 만난 자의 마땅한 반응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처럼 다음세대를 위해 그들이 복음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어느 자리에서나 증인으로 생명과 마음을 다해 섬겨야겠다고 다짐했다.

"하나님의 서원이 내게 있으니 내 일을 다 마치고 그분께 보고를 올릴 때까지 나는 이 땅의 꽃이나 꺾으며 그늘 속에 놓고 있을 수 없다"고 했던 에이미 카마이클의 고백처럼 무의미한 죄 된 삶이 끝나고 새롭게 창조된 생명으로 바뀌었기에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다. 또한 곳곳에서 많은 이들이 자신의 전부를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계속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영화 속에서 안네의 가족을 도운 밍지스의 말로 글을 마무리한다. 그리고 그녀의 말처럼 평범해 보이는 우리를 통해 주님은 세상을 바꾸실 것이다.

"전 영웅이 아니에요. 전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모두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평범한 비서, 주부, 청소년들이라고 해도 각자의 길에서 작은 등을 켤 수 있어요. 캄캄한 방이라고 해도요. 여러분이 진정한 영웅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영웅이에요" (드라마 | 독일, 미국 | 리처드 라그라브네스 감독 | 122분 | 15세이상관람가 | 2007)

글: 박정현(문화행동 아트리)



후원자 명단  
(2011년 7월 29일 ~ 8월 11일, 가나다 순)

△개인  
고춘희 김남분 김준환 박경희 박태일 배용구 백이나 이민자 이설옥A 이설옥B 임재아 무명\*2

△교회 및 단체  
국제선교교회 서울제일교회 성도교회 순회선교단

복음기도신문은 하나님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는 동역자들의 헌금과 기도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 기사 제보 · 구독 · 헌금 · 동역 문의  
☎ 070-7417-0408-10  
E-mail : gnpnews@gnmedia.org  
(400-800) 인천시 중구 향동7가 1-44  
요셉의 창고 2F 복음기도신문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서안목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인천.다06036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